

# 2008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오버 사이즈 룩

김지영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 The Over-Sized Look Expressed in 2008 Fashion Collections

Ji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현재의 패션은 다음 패션으로 새로운 시도를 이행해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또한 현재 유행하는 많은 패션 스타일은 과거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것들이다.

최근 들어 볼륨감 있는 오버 사이즈 룩이 큰 인기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슬림하게 몸매를 표현하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이제는 느슨하고 여유로운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오버 사이즈 룩은 1980년대 패션의 복고풍이라 볼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복고풍의 저변 확대로 1940년대, 1960년대 등 다양한 시기의 패션이 끊임없이 재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고풍에 의해 나타난 패션은 옛것과 동일하지 않다. 유행 스타일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와 미의식을 반영한 것이므로 취향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패션의 특성상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볼륨 있는 스타일은 1980년대의 스타일과는 분명히 다른 요소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오버 사이즈 룩의 패션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적 미감에 의해 새롭게 나타난 오버 사이즈 룩의 미적 가치를 파악하고 나아가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서적

및 트렌드 정보업체의 정보지 및 웹사이트 정보를 참고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스타일닷컴(www.style.com)에 실린 2008년 S/S, F/W 시즌의 여성복 컬렉션 사진자료 및 컬렉션 리뷰 기사를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1980년대 유행한 오버 사이즈 룩은 패드를 사용하여 넓은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로 남성과 같은 강인한 이미지가 특징적이었다. 반면 최근의 스타일은 전체적인 품이 넓으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를 강조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8년 패션 컬렉션을 살펴본 결과 볼륨감 있는 오버사이즈 스타일은 거의 모든 아이템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Burberry Prorsum, Stella McCartney, Marni, Dolce & Gabbana, Louis Vuitton, DKNY, Fendi 등 여러 브랜드에서 오버 사이즈 룩을 발표했는데, 그 특징을 아이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탑의 경우 몸에 피트되는 재단이 아니라 사각형의 천을 입은 듯한 형태로 자루처럼 넉넉하고 여유 있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드레이프성이 좋은 폴리에스테르나 레이온 혼방, 저지 소재에 의해 후들거리는 느낌으로 스키니진이나 레깅스와 매치되었다. 인체를 따라 흘러내리는 소매, 변형된 형태의 프렌치 소매나 비대칭 소매, 캐미솔 언더레이어로 이중 효과를 표현한 경우도 많았다. 셔츠는 박시한 실루엣의 롱셔츠, 활동적인 느낌의 롤업 스타일, 슈미즈형이나 원피스형 등 변형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드롭 솔더 형으로 어깨선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스트링 등으로 조여

서 여유감을 조절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타일도 많이 선보였다.

재킷이나 코트 등 외투는 험라인이나 네크라라인 등을 크게 재단하여 늘어지는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 많았다. 소재는 가죽, 모직, 니트 등 다양하였고, 스트링을 조여 실루엣을 변형할 수 있는 다변형의 스타일도 자주 등장하였다. 라펠을 크게 재단하여 축 처지는 드레이프 효과를 주었고, 포켓도 역시 크게 재단하여 아래로 처지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많았다. 기모노 소매의 가운데 코트, 칼라나 소매 등에 풍성한 셔링을 잡아 디테일을 강조한 스타일도 많이 나타났다. 특히 둥근 어깨와 암홀에 변화를 준 아이템이 많았는데, 암홀을 몸판 안쪽으로 넣거나 독특한 절개선으로 암홀라인을 변화시켜 어깨선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레글런 소매나 케이프 소매, 튜립 형태로 오므러지는 크레센트(crescent) 소매 등과 같이 부드럽고 둥근 느낌의 소매로 오벌 라인을 연출하였다. 여유 있고 풍성한 표현이 가능한 기모노 소매나 볼륨감을 형성할 수 있는 후드도 애용되었다.

하의의 경우에도 볼륨감 있는 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는데, 스커트의 경우는 여성적인 느낌으로 힙 부분에 볼륨을 준 스타일이 많았다. 볼륨을 형성하기 위해 턱을 잡거나 절개하여 셔링 처리를 하였고 특히 앞쪽으로 볼륨이 쏠린 스타일이 많이 등장하였다. 팬츠는 실루엣을 무시해 버린 듯한 배기 팬츠나 밑위를 깊게, 주변의 폭을 넓게 하는 동시에 단 폭을 좁게 한 페크톱 스타일이 많이 선보였다. 매니시 스타일로 서스펜더를 어깨에 걸치지 않고 허리에 내려서 멋스럽게 연출하거나 무릎을 살짝 덮는 빅 사이즈의 크롭 팬츠, 살로벳과 같은 분위기로 캐주얼하게 연출하기도 하였다. 커다란 자루 같은 오버롤즈나 점프슈트는 볼륨감을 극대화하면서 아방가르드하게 연출되었다.

니트는 기교 있는 짜임의 케이블 니트나 플레이트 장식이 혼합된 복잡한 형태의 짜임이 많이 등장하였다. 특히 F/W 시즌에는 부드러운 담요로 몸을 감싼 듯 포근하고 풍성한 아이템이나 아우터 개념의 길고 부드러운 가디건, 니트 소재의 벨티드 원피스도 등장하였다. 어깨를 감싸는 듯한 빅 칼라나 터틀넥 스타일로 벌키하면서 포근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특히 넓고 풍성한 터틀넥의

일종인 카푸친 칼라(capuchin collar)를 머플러처럼 다른 코트나 니트 아이템 위에 덧입어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 4. 결론

2008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오버 사이즈 룩은 1980년대의 복고풍이지만 그 표현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1980년대의 오버 사이즈 룩은 패드를 넣어 딱 벌어진 어깨와 가는 허리코어 커리어 우먼의 과잉 룩을 연출하였으며, 넓은 어깨에 의한 볼륨감으로 여권의 신장을 표현하였다. 남성 같은 이미지를 위해 연출된 인위적인 넓은 어깨는 성숙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주었다. 특히 당시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였는데, 서구의 입체적 재단방법과 다르게 두르고 걸치고 휘감는 스타일은 실질적인 사이즈와 오버사이즈의 양방향을 활성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반면 2008년에 나타난 오버 사이즈 룩은 루즈하고 자연스러운 착장방법으로 멋스러운 감성을 연출하였다. 특히 부드러운 소재감이 특징적으로 인위적인 형태미보다 축 처지고 늘어진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디자인의 특성은 부드럽게 바디라인을 따라 흐르는 소재감, 걸어서 늘어뜨리는 디테일, 언밸런스한 컷팅의 재단, 헐렁하면서 모호한 볼륨감이 특징적이었다.

이처럼 최근 나타난 오버 사이즈 룩은 인체에 어떤 속박도 가하지 않는 여유 있고 루즈한 느낌으로 연출되어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부드러운 소재에 의한 착용의 편안함과 넉넉한 핏,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가능한 캐주얼 스타일로 육체적 편안함과 정신적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현대 도시인의 감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수학사.  
최해주, 안은경(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53(2)**, 137~151.  
Malcom Bridge Information Service(2007), *Weekly Trend*, No. 277, 287, 291, 302.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www.style.com](http://www.style.com)